

식민지 경성과 레즈비언 로맨스,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

-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아가씨〉, 〈유령〉을 중심으로*

이문우**

1. 경성의 '식민지 로맨스'와 네이션
2. 〈경성학교〉: 난잡한 돌봄 공동체의 잠재태와 사유의 가능성
3. 〈아가씨〉: 레즈비언 네이션으로의 회귀
4. 〈유령〉: 포스트-퀴어네이션을 향한 확장의 움직임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경성을 재현하는 세 편의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아가씨〉, 〈유령〉에 나타나는 레즈비언 로맨스에 주목하며, 이 영화 속에 나타나는 레즈비언 관계가 향해가는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식민지 경성을 재현하는 작품들은 '식민지 로맨스'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정도로 식민지 조선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이성애 로맨스를 결합시키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그 안에서 여성은 남성에 의해 구출되거나 남성을 조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며 대상화되어 왔다. 더불어 '식민지 로맨스' 서사 안에는 투쟁해야 할 제국, 지켜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8645)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야 할 조국이라는 대의만 있을 뿐, 새롭게 상상되는 네이션이라는 상 또한 부재한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루는 이 세 편의 영화는 이성애 로맨스 구조의 바깥에서 여성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네이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경성학교>를 퀴어-호러, 그리고 SF의 상상력 속에서 읽어 나가며 영화의 마지막에 떠오르는 주란의 환상 속 장면을 인간과 비인간 생명, 비생명 사물들의 이종들이 얽히고 연결되는 난잡한 돌봄 공동체의 잠재태로,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으로 읽어보고자 했다. <아가씨>의 경우, 여성이라는 몸의 대칭적 이미지를 통해 숙희와 히데코의 민족적, 계급적 차이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의 차이, 개별성까지 지워버린 듯한 폐쇄적인 선실 속 섹스신을 통해 레즈비언 네이션으로의 회귀를 읽었다. 마지막으로 <유령>은 '식민지 로맨스' 서사의 구조와 비슷하게 독립운동하는 레즈비언을 그려내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네이션의 상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퀴어와 비-퀴어 존재들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될 수 있는 독립운동을 끌어간다는 점, 그리고 교차성 페미니즘의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퀴어네이션을 향한 보다 확장된 움직임의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 논문은 퀴어영화 연구에서 그간 다루지지 않았던 탈식민의 가능성, 혹은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의 가능성을 레즈비언 로맨스와 의 관계 속에서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식민지 경성, 레즈비언 식민지 로맨스,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아가씨>, <유령>, 난잡한 돌봄 공동체, 레즈비언 네이션, 포스트-퀴어네이션)

1. 경성의 '식민지 로맨스'와 네이션

2000년대 이후 식민지 시기를 한국 근대성의 기원으로 보고 미시사의 측면에서 문화적 발생과 역사적 행위주체를 고찰하는 연구들, 그리고 출판계의 경향은 2000년대 중반 대중문화계에서 일련의 '경성트렌드'를 이끌어낸다.¹⁾ <기담>(2007), <라디오 데이즈>(2008), <원스 어폰 어 타임>(2008), <모던보이>(2008), <그림자 살인>(2009)이 연이어 개봉했고, 이후 식민지 시기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암살>(2015),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2014, 이하 <경성학교>), <아가씨>(2016), <해어화>(2016),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유령>(2023)으로까지 꾸준히 이어진

1) 문경연, 「식민의 시대, 애도의 드라마-〈경성 스캔들〉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346쪽. 문경연은 『서울에 만스홀을 허하라』(김진송, 현실문화, 1999)를 기점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식민지하 민중들의 일상과 감각, 문화적 사례들을 맥락화하는 경성 연구, 곧 『모던 보이, 경성을 거닐다』(신명직, 현실문화연구, 2003), 『경성 트로이카』(안재성, 사회평론, 2004), 『경성기담-근대 조선을 뒤흔든 살인 사건과 스캔들』(안재성, 사회평론, 2004), 『럭키 경성』(전봉관, 살림, 2007) 등 경성을 표제어로 건 연구들이 이어졌음을 짚으며 이와 같은 연구계의 동향이 대중문화계의 식민지 시기 경성 재현에 영향을 미쳤음을 짚는다. (문경연, 앞의 글, 346쪽)

한편, 2008년,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세 편의 영화가 동시에 개봉했으며, 이에 대해 한 기사는 경성트렌드의 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지난 설날의 극장가는 이색적인 풍경을 준비하고 있었다. 설날영화들의 대목경쟁도 관심사였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지점은 경성이란 도시를 담은 3편의 영화가 동시에 맞붙는다. 참가할 선수들은 조선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를 만드는 소동극을 그린 <라디오 데이즈>와 전설의 보석을 둘러싸고 일본군과 독립군, 사기꾼이 활극을 벌이는 <원스 어폰 어 타임>, 그리고 조국을 뺏긴 슬픔보다 연인을 잃은 절망에 허우적대는 남자의 애달픈 상황을 그린 정지우 감독의 <모던보이>였다. 2편도 아니고 3편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은 기이했다. 어쩌다 동시에,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3편 모두 한껏 달아오른 경성트렌드의 봄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강병진, <<모던보이> 1930년대 경성, 모던보이의 지독한 사랑>, 『씨네21』, 2008.09.18.,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52999, 검색일: 2025.09.01.)

다.2) 이러한 경성트렌드 속에서 그 흐름을 주목한 논의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이 영화들을 다루는 많은 연구가 식민지 근대라는 역사적 시간과 그 재현, 그리고 탈식민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3)

한편, 다른 층위에서 식민지 경성을 재현하는 작품들은 ‘식민지 로맨스’⁴⁾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정도로 식민지 조선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이성에 로맨스를 결합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주목한 양근애는 2000년대 이후 역사드라마가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주목한다는 점, 특히 2010년대 이후 역사드라마가 로맨스와 결합하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짚고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역사에 기반한 드라마, 특히 식민지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 정치성이 탈각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드라마와 로맨스의 장르적 결합은 “연애와 ‘애국’의 결합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 이와 같이 식민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물과 로맨스의 결합을 ‘식민지 로맨스’

2) 이외 식민지 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면서 일부 공간적 배경을 경성으로 설정하는 영화로는 〈마이웨이〉(2011), 〈동주〉(2016), 〈밀정〉(2016) 등이 있다.

3) 김지영, 「정념과 근대: 영화 〈기담〉의 식민지 시대 재현방식 연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제16권 1호, 한국문화이론과비평학회, 2012, 369-394쪽; 강성률, 「일제강점기 배경 영화의 탈식민주의적 독해-파농으로 〈마이 웨이〉와 〈암살〉 분석」, 『씨네포럼』 제22호, 영상미디어센터, 2015, 473-500쪽; 김승경, 「역사와 기억 사이: 영화 〈암살〉」, 『현대영화연구』 12권 1호, 현대영화연구소, 2016, 133-160쪽; 진수미, 「〈모던보이〉와 〈암살〉의 본정과 종로 재현 연구-탈식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9권 7호, 한국콘텐츠학회, 2019, 234-245쪽.

4) 드라마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등장한 단어이지만, 영화 또한 그 연장선에서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 용어를 차용한다. (구자준, 「식민지 로맨스’의 네이션과 젠더-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8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2, 111-148쪽.)

5) 양근애, 「역사드라마는 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가-〈미스터 션샤인〉(2018)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126쪽.

6) 위의 글, 148쪽.

라는 단어로 표현한 구자준의 연구는 이 지점에서 참고할만 하다. 구자준은 <미스터 션샤인>의 시공간적 배경이 한성과 식민지 경성이 착종되어 설정되어 있음에 주목해 영화를 포함한 모던한 경성의 재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영화 속 모던보이들의 독립운동이라는 결말을 “논리적인 서사적 귀결”로 조명한다.⁷⁾

영화 또한 이러한 경향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라디오 데이즈>의 경우 당대 최고의 신여성인 마리를 향한 모던보이 로이드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으며, <윈스 어폰 어 타임> 또한 춘자를 유혹하는 봉구의 모습을 보여준다. <모던보이>는 <라디오 데이즈>와 마찬가지로 신여성 조난실에 매혹된 모던보이 이해명의 사랑과 연애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민지 로맨스’는 결말부에 이르러 독립운동과 항일투쟁, 곧 내셔널리즘의 서사와 결합한다. 한편, <암살>은 상하이에서 청부 업자 활동을 하는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새로운 남성 주체를 그려낸다는 점에서 모던보이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이전의 ‘식민지 로맨스’ 서사와 분별점을 가지지만, 결론적으로 그 또한 독립운동가 안윤옥과 사랑에 빠지며 독립운동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식민지 로맨스’와 같은 길을 걷는다.⁸⁾ 이처럼 식민지 경성을 바탕으로 낭만과 애국을 결합하는 다수의 재현은 이성애 로맨스와 내셔널리즘의 서사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식민지 경성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이 당대의 모던함을 그려내기 위한 ‘기호’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식민지 로맨스’ 서사 속 경성은 독립운동과 연결된 시공간으로서, 경성에 대한 재현은 한국이라는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가

7) 구자준, 앞의 글, 127쪽. 이는 “근대의 모습을 향유하는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을 매혹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일제의 강압통치와 독립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김승경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김승경, 앞의 글, 138쪽)

8) ‘식민지 로맨스’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암살>이 보여준 변화를 다룬 글로는 구자준, 앞의 글을 참고할 것.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네이션에 대한 동시대적 상상을 반영한다.⁹⁾

네이션은 일반적으로 민족, 국민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며, '상상된 공동체'로서 그 의미를 지녀왔다. '상상된 공동체'로서 네이션은 “근대 ‘국민 국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호 길항하는 가치들의 종합”으로서의 의미 또한 지니는데, 가라타니 고진은 이를 이어 봉건적 제도가 폐지되고 역사적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등가 교환)과 스테이트(수탈과 재분배) 간의 영역이 착종하고 결속하는 과정 속 두 영역 사이의 근원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상상력으로서 네이션을 설명한다.¹⁰⁾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지배적 체제 안에서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고리는 지속적으로 경합하고 절합하며 그 착종의 형태는 변화해왔지만, 손희정은 고진의 논의에서 네이션이 그 착종 상태를 벗어나 그 외부를 지향하는 운동인 ‘어소시에이션’으로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한다.¹¹⁾ 곧 그는 네이션을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짜는 상상력의 영역이면서 자본과 국가의 가치로 단순히 환원할 수 없는 호혜적 교환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진이 설명한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공고한 고리 속 ‘경합하고 절합하는 관계’, 곧 자본=스테이트의 결합과 통일이 여전히 과정 중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진의 모델을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9)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극은 고증을 바탕으로 했던 전통사극과는 달리, “대체로 거대담론의 재생산에 무관심하고 거시사보다는 미시사에 주목하며,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간극 속에서 당대적 의미망을 새로이 직조하는 독창적인 장르”로 볼 수 있다. 손희정은 이 새로운 장르를 “시원적 네이션이라는 집단적 기억과 근대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보철기억 그리고 개인화된 탈근대적 이야기 소비를 ‘퓨전’하는 것으로, 곧 “네이션의 과거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성과 동시대에 조응하는” 당대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손희정, 「21세기 한국영화와 네이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90-91쪽.)

10) 위의 글, 2-4쪽.

11) 위의 글, 4-7쪽.

고리로 수정한다.¹²⁾ 이에 따라 손희정의 논의에서 네이션은 “자본-스테이트라는 이질적 요소들의 착종을 공고하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유연한 상상력’”, 나아가서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착종 상태를 내파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개념화된다.¹³⁾ 이 글에서는 손희정의 논의 중 기존의 체계를 내파할 수 있는 ‘유연한 상상력’으로서의 네이션의 의미를 참고하여 세 편의 영화에서 상상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네이션으로 표기한다. 이어서 논의하겠지만, 세 편의 영화에서 탐색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형상은 각각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오래간 이 사회를 지배해 온 기존의 체계를 내파하고 그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기존의 역사극, 보다 더 좁게는 ‘식민지 로맨스’ 안에서 네이션은 어떻게 상상되어 왔는가? 이성애에 기반한 ‘식민지 로맨스’의 구도 속에서 네이션은 기존의 국가를 수호하는 것을 그 상상의 근간에 두고 있으며, 이는 곧잘 남성에 의해 구출되는 여성으로 상징화되어 표현된다. 오랜 역사 속에서 여성이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끝내기 위해 조직된 민족주의의 활발한 참여자 역할 대신 상징으로만 취급되어” 온 것과 같이, <라디오 데이즈>, <원스 어폰 어 타임>, <모던보이>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여성은 다시 남성에 의해 구출되어야 하는 국가로 상징화된다.¹⁴⁾ ‘식민지 로맨스’의 서사 안에서 “조선과 겹쳐지는 여성들은 귀환한 남성들에 의해 거듭 구출되”거나 “남성들을 조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며 대상화” 되고, 독립운동의 맥락 속에 놓여있을 때조차

12) 위의 글, 4-7쪽.

13) 위의 글, 4-5쪽.

14) 민족주의 속 상징으로 취급된 여성과 관련된 논의는 신시아 인로, 『바나나, 해변, 그리고 군사기지』, 권인숙 역, 청년사, 2011, 75쪽 참고.

남성이 서사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서사적 계기가 될 뿐이다.¹⁵⁾ 이처럼 이성애를 근간으로 하는 ‘식민지 로맨스’ 서사 안에서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은 부재하고, 여성은 현존하는 동시에 부재하는 그림자로 스크린을 배회한다.¹⁶⁾

이와 같이 경성의 ‘식민지 로맨스’를 다루는 영화, 곧 네이션에 대한 동시대적 상상에서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기획과 여성이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 편의 영화, <경성학교>와 <아가씨>, <유령>은 이성애 로맨스 구조의 바깥에서 여성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네이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성학교>와 <아가씨>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식민지 시기 경성 속 여성들을 그려내고 이들의 이탈과 탈주를 통해 기존의 체계 밖,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령>은 박차경과 유리코의 레즈비언 관계를 중심으로 확장된 연대를 통해 독립을 향한 열망을 드러낸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들이 식민지 시기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경성 트렌드에 주목하며 탈식민의 가능성을 탐색하던 논의와는 다른 흐름 속에서 다뤄진다는 점이다. 이들을 다루는 논문에는 탈식민과 관련된 논의, 혹은 새로운 네이션의 탐색과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탈각되어 있다. 이는 앞선 영화들, 곧 이성애에 기반한 ‘식민지 로맨스’와 내셔널리즘의 서사를 결합한 영화들과는 달리, 이 영화들이 귀어함을 드러내며 표면적으로 내셔널리즘의 서사와 탈식민의 가능성, 혹은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을 드

15) 구자준, 앞의 글, 140쪽. ‘식민지 로맨스’ 서사의 여성/남성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해당 논문의 5절 “‘식민지 로맨스’의 여성과 조선”을 참고할 것.

16) “실체가 현전(presence)함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는 실체의 어떤 부분도 실재하지 않음으로서 부재(absence)”하는 것으로서 그림자의 특성은 한의정, 「현전-부재의 흔적: 그림자의 현대적 변용에 대하여」, 『현대미술사연구』 제37집, 현대미술사학회, 2015, 223-245쪽을 참고.

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⁷⁾ 하지만 이 글은 내셔널리즘과 동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통해 기존의 '식민지 로맨스' 서사의 영화들을 바탕으로 탐색해 왔던 바와 같이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력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 세 편의 영화에 등장하는 레즈비언들은 기존의 체제와 불화하고 그에 저항하며 새로운 네이션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준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경유한, 새로운 네이션을 향한 상상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인물들 간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탐색하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이성애규범성(heteronormativity) 영역 바깥의, 유동적인 섹슈얼리티를 지칭할 때에는 퀴어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한다.

2. <경성학교>: 난잡한 돌봄 공동체의 잠재태와 사유의 가능성

<경성학교>는 1938년, 총동원체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병약한 소녀 주란이 경성 근교의 기숙학교에 입학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주란이 입

17)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들의 퀴어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퀴어함의 측면에서 <경성학교>를 다룬 논문 한 편을 제외하고 <경성학교>를 다룬 연구는 총 네 편으로, 이 논문들은 <경성학교>의 장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경성학교>는 호러인 동시에 SF의 장르적 특성을 가진 초능력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영화와 관련해서는 초능력 영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와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만이 존재한다. 한편, <아가씨>를 다루는 논문 중 퀴어함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두 편이 존재하지만, 모두 이 영화의 퀴어함을 전체적인 논의의 부분으로 다룰 뿐이다. <아가씨>와 관련된 논문은 미학적 관점에서 의상 및 디자인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혹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그 외 주변적 논의를 구성한다.

학한 기숙학교는 사실 인체개조 실험을 위한 하나의 실험실이다. 결국 황국신민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임을 강조하며 체력적으로 강한 여성을 배출하는 것을 기본적 소임으로 삼는 이곳에서 주란은 매일 배급되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며 초인적인 신체를 갖게 되고, 자신의 퀴어/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동시에 괴물화되어 제국의 규율과 질서를 무화(無化)한다. 이 글은 <경성학교> 속 주란과 연덕의 퀴어한 관계와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그리고 주란의 괴물화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기존의 소녀 괴물에 대한 논의와는 다른 방향에서 <경성학교>에 나타난 ‘소녀성’¹⁸⁾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¹⁹⁾ 그리고 당시 조선을 지배한 총동원체제기를 이탈하는 소녀성의 가능성, 곧 소녀들의 레즈비언 관계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네이션의 가능성을 난잡한 돌봄공동체의 형상을 바탕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전의 연구에서 다뤘듯이, <경성학교>의 주란은 공포 영화라는 장르 속 소녀 괴물의 계보에서 다룰 수 있다. 섹슈얼리티를 발현하게 되는 성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는 과정 속에 놓여있는 소녀는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경계의 특질을 지니며, 이와 같은 특질은 소녀를 공포 영화의 괴물로 형상화하게 된다.²⁰⁾ <진저 스냅>과 <캐리>의 소녀가 생리를 시작하며 괴물처럼 변화하듯, <경성학교>의 주란은 연덕에 대한 섹슈얼리티를 발현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퀴어/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면서 괴물화된다. 곧 공포 영화의 장르적 전통 속 퀴어/레즈비

18) ‘소녀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project38의 “전쟁과 여성 영화제” <경성학교>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에서 착안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2g-lh35iA4&t=1435s>, 검색일 2025.09.01.)

19) 이문우, 「소녀 괴물과 퀴어한 신체」, 『횡단인문학』 제8호,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21, 213-236쪽.

20) 위의 글, 225쪽.

언 섹슈얼리티를 발현하는 소녀라는 측면에서 〈경성학교〉의 주란에 먼저 주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경성학교〉에 재현되는 소녀들은 일본 제국과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상기시킨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소녀들을 재현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연덕에게 “이제 우리 집에 가자”고 하는 주란의 마지막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소녀들의 귀향 서사를 환기한다.²¹⁾ 나아가 김소연이 짚어내듯이, 〈경성학교〉 속 소녀들의 경험은 위안부의 경험과 겹쳐놓으며 영화 속 소녀들의 초능력 육체가 “멜로드라마적 육체”로 전유되고 “서사적으로 죽음 속에 봉해진 그들의 육체는 계속해서 애도되어야 하는 트라우마적 시간 속으로 들어가, 의미화될 수 없는 ‘무’의 차원”이 되었다고 읽을 수도 있다.²²⁾ 이 글에서는 〈경성학교〉가 그려내는 소녀성의 이 두 가지 측면, 곧 괴물화되는 레즈비언 소녀와 위안부 서사 안에서 피해자로 그려지는 소녀를 퀴어-호러, 그리고 SF 영화라는 장르적 상상력 속에서 교차시켜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중층적인 레이어를 네이션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속 소녀는 ‘무고한 희생자’라는 이미지로 재현된다.²³⁾ ‘소녀’라는 범주의 탄생을 살펴보면 김복순은 소녀를 “예비 여성시민으로서”, 근대국가 형성의 과정과 관련해 “새로운 가부장제를 안착시키는데 필요한 순결 규범, 애정 규범, 미적 규범이 내면화되는 단계”로 의미화한다.²⁴⁾ 박숙자 또한 소녀라는 ‘기호’가 ‘어른’의 상대적 표상으

21) 위의 글, 217쪽.

22) 김소연, 「초능력 영화와 포스트바디의 알레고리적 존재론—〈초능력자〉,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염력〉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29집,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248쪽.

23) 허윤, 「일본군 ‘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소녀와 할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29호, 한국여성사학회, 2018, 131-164쪽.

24)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8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8, 211-228쪽.

로 구축된 것이며, ‘소녀’가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존재인 채로 탈성화된다는 점을 짚는다.²⁵⁾ 일본군 위안부 서사 속 소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볼 수 있다. 허윤은 이승연의 화보집 ‘여인’과 영화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겹쳐 읽으며,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이전에 성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등장할 경우, 그 신체를 성애화하여 재현함을 짚는다.²⁶⁾ 이처럼 “성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등장할 경우, 성폭력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소녀 이미지는 하나의 방편으로 떠올랐고, 이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으로 이어진다.²⁷⁾ 평화의 소녀상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무고한 희생자’ 프레임에 적합하기 때문에 희생자로서 여성을 부각시키고 보호해야 할 소녀를 지키지 못한 분노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표상이 되었다.”²⁸⁾ 이처럼 탈성화된 기호로서 소녀가 성적 폭력의 대상이 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속 소녀는 ‘무고한 희생자’의 이미지를 입고 제국의 폭력에 짓밟힌 민족의 상징이 된다.

2010년대 중반에 등장한 <귀향>(2015)과 <눈길>(2017)은 이러한 위안부 서사 속 소녀 재현의 맥락에 놓여있다. 주유신은 “위안부라는 민족적 비극을 더 선명하게 하고 그들의 신체와 정신에 가해진 폭력을 더 극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 두 영화에 소녀 주인공이 필요했음을 짚는다.²⁹⁾ 이때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영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귀향’ 서사다. 두 영화 모두 귀향을 서사의 큰 틀로 구축하면서, 돌아가서 안착해야

25)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근대 소녀의 타자성 형성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97호, 한국어문학회, 2007, 273쪽.

26) 허윤, 앞의 글, 139-142쪽 참고.

27) 위의 글, 141쪽.

28) 위의 글, 142쪽.

29) 주유신, 「위안부 영화와 역사쓰기의 새로운 도전: <귀향>과 <눈길>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연구』 제5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101쪽.

할 ‘고향’과 이를 상징하는 ‘자연’으로 민족을 관념화한다면, 이와 대조되는, 상처받고 훼손된 소녀의 이미지는 희생된 민족을 상징하게 된다.³⁰⁾ 곧 일본군 위안부를 다루는 동시대의 영화적 재현 속에서도 소녀에 대한 상상력은 기존의 재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³¹⁾ 이 영화들의 재현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로서 소녀는, 남성중심적 민족이자 국민으로서의 네이션이 수호하지 못한 존재가 된다. 더불어 리얼리즘적 일본군 위안부 서사 속 소녀의 재현은 비극적인 현실의 재연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 안에서 소녀는 ‘무고한 희생자’라는 상징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퀴어-호러, 그리고 SF라는 장르적 상상력 속에서 기존의 소녀상은 어떻게 변주되는가? <경성학교>는 한 쌍의 소녀들이 제국의 폭력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를 중심에 두면서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피해자 서사를 반복하는 듯하지만, 이 영화의 장르적 상상력은 이들을 단순히 무력한 희생자에 머물도록 하지는 않는다. <경성학교> 안에서 소녀들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재현되며, 이는 그들이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존재’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주란의 신체를 매개로 퀴어함과 괴물성은 함께 증식”하는데, 소녀의 섹슈얼리티 발현은 공포 영화의 계보 속에서 체계가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화와 연결된다.³²⁾ <경성학교> 또한 이러한 공포영화의 장르적 상상력에 기대어 주란의 괴물성을 그려낸다.

30) 위의 글, 102쪽.

31) 기존의 소녀상을 답습하고 있음에도 <눈길>은 기존의 일본군 위안부 서사에서 벗어난 성취 또한 보이는데, <귀향>과 대조적으로 <눈길>이 지닌 차별점과 관련해서는 위의 글을 참고할 것.

32) 주란의 신체를 매개로 퀴어함과 괴물성이 함께 증식함에 대한 논의는 이문우, 앞의 글, 217쪽 참고.

한편, 호러 등 비주류 영화의 주인공으로 재현되는 소녀 괴물이 ‘너무 성숙한’ 섹슈얼리티로 인해 괴물이 된다는 논의는 백문임, 「소녀 괴물과 남성 마조히스트: 한국 영화와 미성년」, 『문학과 사회』 제17권 2호, 문학과지성사, 2004, 713-715쪽을 참고할 것.

이와 함께 <경성학교>는 백합물의 코드를 차용해 ‘비밀의 회원’을 그려내는 장면³³⁾ 뿐 아니라 “이상한(queer)” 아이인 주란을 향한 연덕의 호감, 그리고 그를 향한 주란의 욕망을 그려내며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형상화한다. 이처럼 연덕을 향한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자각하고 발현하면서 주란은 점점 제국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간다. 이와 같은 섹슈얼리티의 발현은 <귀향>과 <눈길>을 비롯한 최근의 서사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소녀들이 탈성화되었던 것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된다. 비록 이 영화에서 주란과 연덕의 레즈비언 관계가 성애적으로 가시화되어 그려지지는 않지만, “이상한” 아이인 주란과 연덕의 관계는 충분히 퀴어한 것—곧,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로 가시화된³⁴⁾ 하지만 규율을 이탈하고 초과한 주란은 제국의 폭력에 맞서 이를 무화(無化)하는 한편,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리고 이 영화의 끝에 이르러 경성학교에 남게 되는 것은 단 한 명의 소녀일 뿐, 경성학교의 이야기는 기록조차 되지 못한 비밀이 되고 만다.³⁵⁾ 이때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괴물화, 그리고 은폐 또한 오래된 재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린다 하트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범죄화와 함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가 비밀로 담론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출몰과 은폐를 지배 이데올로기인 이성애적/가부장적 문화가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 동원하는 것으로 설명한다.³⁶⁾ 결국 제국의 규율을 이탈한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는 (자

33) 허윤, 「번역된 섹슈얼리티, 식민지 조선의 퀴어와 만나다」, 『한국여성학』 제34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8, 163쪽.

34) 이와 관련해서는 이문우, 앞의 글을 참고할 것.

35) 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녀들, 단 한 명의 목격자, 기록조차 될 수 없었던 미스터리가 밝혀진다.”라는 예고편의 문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36) 이문우, 「1980년대를 퀴어링하기: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80-81쪽 참고.

기)파괴적으로 그려지며, 다시 한번 체계 내에서 은폐되며 통합되는 결말을 맞게 된다.

이처럼 이 영화의 퀴어-공포라는 장르적 상상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소녀를 체계를 초과하는 존재이자 제국의 규율을 이탈하고 파괴하는 존재로 그려낸다면, SF의 상상력은 다른 방향에서 이들의 죽음을 새로운 상상으로 이끈다.³⁷⁾ <귀향>이 영혼을 통해 실질적인 고향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귀향' 서사를 완성하고, <눈길>이 삶의 끝에 이르러 눈길에 새겨진, 고향에서의 과거를 따라간다면, <경성학교>는 SF의 장르적 상상력을 통해 연덕과 주란, 소녀들이 함께 한 곳을 새로운 고향으로 그려낸다. 고아인 연덕이나 부모가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주란에게는 애초에 돌아갈 '고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집에 갔다'며 급작스레 사라진 소녀들이 향한 곳 또한 제국의 실험실이기 때문에 <경성학교>에는 소녀들이 돌아갈 곳, 곧 고향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제 우리, 집에 가자"는 주란의 말은 훼손되지 않은 과거를 향하지 않는다. 죽어가는 주란의 환상 속에서 영화는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며, 그 미래는 경성학교 안에서 퀴어한 관계 속에 이어져 온 비밀의 공간으로 구체화된다.³⁸⁾ 이 글에서는 결말에 등장하는 이 공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원적 공동체가 아닌 미래를 지향하는 공동체, 곧 폐허에서 시작되는 난잡한 돌봄 공동체의 잠재태이자 사유를 통해 더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네이션을 향한 상상의 가능성으로 읽는다.

소녀들을 황국신민으로 개조하려는 제국의 내셔널리즘 기획이 실패한

37) 주란과 연덕을 포함한 다른 소녀들의 규율 위반과 이탈과 관련된 논의는 이문우, 「소녀 괴물과 퀴어한 신체: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을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제8호,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21, 218-224쪽을 참고할 것.

38) 이 공간에서 이어져왔을 퀴어한 관계에 대한 논의는 위의 글, 223쪽을 참고할 것.

자리, 그 폐허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은 퀴어한 배치 속에 존재한다.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혹은 아직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것을 지지함으로써 존재하기(들)을 넘어선 생성되기(들)을 가능케 하”는 이 “퀴어한 배치”의 공간 속에서 주란과 연덕, 그리고 ‘아무 것도 제대로 된 것은 없는’ 사물들은 서로 연루된다.³⁹⁾ 그리고 이 연루의 감각은 “상호의존성”⁴⁰⁾을 바탕으로 두는 돌봄의 일면과 이어진다. 더 케어 컬렉티브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주한 돌봄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돌봄의 비전을 선언하는데, 이는 가족으로 한정되는 돌봄의 범주를 새로이 규정하고 확장하는 ‘난잡한’ 돌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⁴¹⁾ 이때 더 케어 컬렉티브가 제시하는 ‘난잡한’ 돌봄의 윤리는 <경성학교> 속 기숙학교의 경쟁체계를 이탈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 주란과 연덕의 관계로 연결된다. <경성학교>에 그려지는 기숙학교의 경쟁체계는 신자유주의 체계를 환기한다. 도쿄로 유학 갈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우수 학생 제도는 학생들을 경쟁체제로 몰아넣고, 우수학생에 선발된 주란을 향한 유카의 분노가 보여주듯 기숙학교의 체계는 경쟁외의 관계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결국 죽음과 같은 자기파괴로 이어지는 유카의 모습은 이 학교의 체계가 서로를 향한 돌봄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돌봄마저도 불가능한 폐허 같은 세계를 환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주란과 연덕을 통해 희망의 관계를 그려낸다. 연

39) “들뢰즈식 배치란 흩어져 있으나 서로 연루된 조직망”으로 설명되며, 재스비어 푸아는 이를 전유해 퀴어한 배치를 설명한다. 재스비어 푸아, 이진화 역, 「퀴어한 시간들, 퀴어한 배치들」, 『문학과 사회』 제29권 4호, 문학과지성사, 2016, 101쪽. <경성학교>를 푸아의 논의와 엮어 설명한 글로는 이문우, 앞의 글, 231-233쪽을 참고할 것.

40) “무엇보다도 돌봄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정소영 역, 니케북스, 2021, 17쪽.

41) 위의 책, 44쪽.

덕은 자신에게 왜 잘해주냐는 주란의 질문에 “약해보이잖아”라고 답한다. “약하고 힘이 없었”던 소녀들을 개조해야 할 실험체로 봤던 제국의 논리와는 달리, 그 안에서 오로지 도쿄 유학만을 목표로 경쟁해야 했던 소녀들과는 달리, 연덕은 주란의 취약함을 보고 그와 관계 맺고 그를 돌봄으로써 함께 살기 위해 그를 이끌고자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덕에게 의존하고 연덕과 귀여한 욕망을 나누면서 연덕과 관계 맺은 주란 또한 연덕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에 분노하고 공명한다. 이 글은 이 상호의존의 관계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경쟁체계를 적극적으로 넘어서고 혈연 가족의 범주를 넘어선 귀여한 관계 속 난잡한 돌봄의 윤리를 읽는다.

더불어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더 케어 컬렉티브가 제시하는 난잡한 돌봄의 윤리가 “인간,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⁴²⁾ 영화의 끝에 이르러 제시된 새로운 상상의 공간 속에서 주란과 연덕은 고장난 축음기를 손보고 축음기가 작동하지 않는 지연의 순간을 기다리며 그와의 관계를 이어간다. 동시에 그 공간은 과거 현실 속의 죽은 공간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그 안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꽃과 덩굴, 그리고 그 위에 해를 비추는 열린 하늘이 있다. 출구라곤 없었던 과거의 폐쇄적인 기숙학교와는 달리, 이 상상의 공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경성학교〉의 결말을 단순한 환상이 아닌 새로운 사유의 공간으로 열어둘 수 있는 것은 SF라는 장르적 상상력이다.

도나 해러웨이는 SF를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연결을 가지고 세계들을 결합하고 변형하는 방법”으로서 “실뜨기”와 연결하면서 이를 세계를 만드는 실천이자 서로 함께-되는(becoming-with) 과정으로 의미화한다.⁴³⁾

42) 위의 책, 79쪽.

43)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2021, 11-28쪽. 해러웨이의

그리고 이 SF 세계 만들기의 실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사유해야만 한다. 곧 해러웨이는 우리가 구성된 이야기 바깥에서 생각하며 이야기를 바꿔야 하고,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렇게 달라진 이야기를 통해 “공동의 살 만한 세계가 조금씩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⁴⁴⁾ 이 글은 〈경성학교〉가 주란과 연덕의 관계를 통해 난잡한 돌봄의 윤리를 보여주는 한편 “난잡한 돌봄 공동체”의 잠재태로서 새로운 네이션의 가능성을,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상상의 단초를 제시한다고 읽는다. 이현재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난잡한 돌봄의 윤리를 해러웨이의 논의 속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을 가진 친족 공동체와 연결하면서 “난잡한 돌봄 공동체”⁴⁵⁾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경성학교〉의 결말에 제시되는 상상의 공간 속 주란과 연덕, 비인간 생명들과 비생명 사물들의 얽힘과 연결, 그리고 관습적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탈한 새로운 시간은 난잡한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낼 기반을 제시한다.⁴⁶⁾ 해러웨이의 주요 개념인 실뜨기의 “연결은 언제나 부분적”이며, 실뜨기를 통해 만들어진 패턴은 조건들이 변화하면서 또 다시 긴장관계, 곧 트러블을 발생시키는데, 이와 같은 트러블은 고장난 축음기의 “자연”의 시간과 연결된다.⁴⁷⁾ 앞서 언급했듯, “주란과 연덕은 고장난 축음기를 손보고 신나는 음악이 재생되기를 기대하며 축음기를 트는데, 걸으려는 “멀쩡해진 것 같”은 이 축음기는 곧바로 음악

함께-되어감과 푸아의 생성되기(들)는 ‘become’이라는 원문의 단어로 이어진다.

44) 위의 책, 75쪽.

45) 이현재,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과 난잡한 돌봄 공동체」, 『한국여성철학』 제37권, 한국여성철학회, 2022, 27-60쪽.

46) 해러웨이는 “크톤”과 “카이노스”의 합성어로 “쓸루세”를 제시하는데, 그 안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노스는 “물려받은 것들, 기억하기, 그리고 도래할 것들, 여전히 존재할 것들을 키우는 일로 충만”한, “무수히 많은 시간성과 물질성”의 가능성을 지닌 “두텁고 진행 중인 현존”의 의미를 지닌다.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8-9쪽.

47) 실뜨기와 패턴, 그리고 트러블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현재, 앞의 글, 55쪽.

을 재생하지 않는다.”⁴⁸⁾ 이 지연의 시간, 곧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사물들, 그리고 주란과 연덕의 관계 맺음이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연결점을 만들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함께 패턴을 만들어”가는 실프기와 연결된다.⁴⁹⁾ 이러한 트러블과 함께 하며 끝없이 변화하는 관계의 이질성 속에서 서로에게 응답할 때, 인간과 비인간, 비동물, 이 모든 이종들이 연결되어 새로운 종들을 만들어내는 “난잡한 돌봄 공동체”의 가능성이 제시된다.⁵⁰⁾

이때 <경성학교>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네이션의 모습을 난잡한 돌봄 공동체와 바로 이어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비록 그 공간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라도, <경성학교>에 제시된 공간이 주란과 연덕이라는 두 명의 인간, 그리고 비인간 생명들과 비생명 사물들의 관계로 한정되어 얽혀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관계의 연속성, 그리고 생명의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성학교>가 보여주는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력을 난잡한 돌봄 공동체의 잠재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SF 세계 만들기의 실천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의 체계를 벗어난 상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 <경성학교>는 이미 새로운 소녀상의 모습, 총동원체제기에 내재된 제국주의의 폭력, 당시 사회에 배태되어 있던 이성애-남성-가부장체제와 신자유주의의 경쟁체제로부터 이탈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가는 네이션의 모습에 대한 단초를 보여줬다.⁵¹⁾ 그리고 그 안에는 “응답-능력을 키워 살기와 죽기라는 트러블과 함께하기를 배우는” 시공간을 통해 손상된 세계를 벗어나 이 인간-비인간들이 앞으로 맺어나갈 관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사유를 이어나갈 가능

48) 이문우, 앞의 글, 232쪽.

49) 이현재, 앞의 글, 44쪽.

50) 위의 글, 55-56쪽.

51) 가부장제의 질서와 이성애중심의 생애주기로부터 이탈한 경성학교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문우, 앞의 글, 220-224쪽 참고.

성 또한 열려있다.⁵²⁾ 〈경성학교〉의 잠재태는 더 많은 사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3. 〈아가씨〉: 레즈비언 네이션으로의 회귀

〈아가씨〉는 사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스미스〉를 바탕으로 코우즈키의 폭력과 후지와라의 계략으로부터 탈주하는 숙희와 히데코의 이야기를 그린다. 총 3부로 구성된 〈핑거스미스〉의 구조를 통해 반전의 구도를 차용하는 동시에 그 설정과 내용을 일부 변주하면서 〈아가씨〉는 숙희와 히데코의 사랑과 연대, 그리고 체계로부터의 탈주와 해방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랑과 연대, 그리고 탈주와 해방을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경성학교〉와는 또 다른 형태의, 레즈비언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네이션의 형상을 1970년대 레즈비언 분리주의 운동에서 제시된 레즈비언 네이션과의 유사성 위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숙희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1부는 보영당에서 살고 있는 소매치기 숙희가 사기꾼인 후지와라(고판돌)와 함께 히데코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계략을 짜고 코우즈키 저택에 하녀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둘의 계획은 뒤집히고 2부는 히데코가 후지와라와 손을 잡고 숙희를 속이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2부에서 함께 드러나는 것은 코우즈키의 서재가 포르노그래피 서적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히데코가 그 서적들을 일본 귀족들 앞에서 낭독하고 일부 장면을 실연하도록 훈육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편, 서로를 속이는 과정 속에서 숙희와 히데코는 사랑에

52)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8쪽.

빠져들어 각자 서로를 속이고자 했음을 털어놓으며, 보영당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탈주를 도모하게 된다. 숙희와 히데코가 탈출을 실행하는 동안, 후지와라는 코우즈키의 지하실로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다 코우즈키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숙희와 히데코는 배를 타고 조선을 탈출해 상해로 향한다.

이때 <아가씨>의 각색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빅토리아 시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핑거스미스>에서 식민지 시기 조선을 배경으로 <아가씨>를 각색할 때 박찬욱은 원작의 두 가지 요소, 계급 체계와 서양식 시설인 정신병원을 염두에 뒀다고 말한다.⁵³⁾ 근대화와 서구화를 거치며 변화하는 시대정신(the changing spirit of the time)을 그려내고자 한 감독의 의도는 코우즈키 저택으로 압축되어 드러난다.

사사키: “이 집엔 건물이 셋이야. 영국 건축가가 설계한 양관하고 이 일 본식 화관을 합쳐서 본채라고 해. 양식, 일식이 하나로 붙은 건물은 일본에도 없잖아. 나라마님이 영국을 존경해서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신 거야. 그 다음은 별채인데, 나라마님이 거기다 서재를 꾸며놓으셨어. 세 번째는 하인 숙소야.”

양식과 일식, 그리고 하인들이 거주하는 한옥까지 하나로 붙은 코우즈키 저택의 혼종성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진짜’ 일본인처럼 행세하며 살고자 하는 코우즈키의 역사와

53) LEE HYO-WON, “Park Chan-Wook Talks ‘The Handmaiden’, Homosexuality Onscreen and Korean Films’ Specific Appeal (Q&A)”, 2016.05.13., <https://www.hollywoodreporter.com/movies/movie-news/park-chan-wook-handmaiden-homosexuality-893716> (검색일: 2025.09.03.)

욕망을 보여준다. 이 저택을 지은 코우즈키는 실제로는 조선인 역관 출신으로, ‘한일합방’ 때 세운 공으로 금광채굴권을 얻어 일본의 몰락한 귀족의 딸과 결혼한 후 아내의 성을 따라 코우즈키로 살고 있을 뿐이다. 곧 그의 저택엔 제국 일본을 향한 선망과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의 저택은 일본으로 상징되는 본채와 별채의 서재, 그리고 식민지 조선으로 상징되는 조선인 하인들의 숙소로 나뉜다. 따라서 그의 저택은 유사 제국으로서 존재하고, 그의 세계는 폭압적인 제국의 질서를 모방한다. 그중에서도 서재는 코우즈키의 욕망이 압축되어 있는 “일종의 낙원”과 같은 공간으로, 철저하게 코우즈키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공간이다.⁵⁴⁾ 코우즈키의 서재는 뱀 모양의 조각상을 기준으로 서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혹은 나갈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경계가 나뉘는데, 그 경계가 “무지의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것과 달리, 그 기준은 지식의 유무와 명확히 연관되지 않는다. 낭독 연습을 마칠 시각이 되어 히데코를 데리러 간 숙희가 무지의 경계선 앞에서 가로막힌 것과 달리, 영화는 무지의 경계선을 신경쓰지 않은 채 서재 안에서 낭독회의 무대를 준비하는 하인들의 모습이나 낭독회 준비를 도우며 코우즈키 옆에 앉아있는 사사키 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에서 무지의 경계선은 정신병원을 위협적으로 언급하는 코우즈키로부터 달아나며 서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코우즈키의 아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서재는 성별도, 나이도, 계급도, 민족도, 그 어떤 일관된 기준도 따르지 않으며 그저 코우즈키만의 통제 아래 존재한다.

54) 서재를 “일종의 낙원”과 같은 공간으로 표현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김혜리, <스페셜> 〈아가씨〉 본격 스포일러하는 인터뷰 - 박찬욱 감독에게 묻다, 『씨네21』, 2016.06.06.,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4313 (검색일: 2025.09.03.)

그러나 어떤 체제도 완전할 수 없듯이, 코우즈키 또한 서재 안에 있을지라도 완전한 지배를 수행할 수는 없으며, 결국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한 코우즈키의 정체성과 지배력은 불안정하게 유동한다. “조선총독부에서 끌어오는 전기가 가끔 끊어지는 것이나 히데코가 아무도 몰래 자신의 방에서 빠져나와 타인의 대화를 엿듣고 다니는 모습” 또한 “그 규율과 감시 체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⁵⁵⁾ 한편, 코우즈키는 후지와라와의 대화에서 조선의 추함과 일본의 아름다움을 대비하며, “아름다움은 그저 잔인한 법인데, 조선은 무르고 흐리고 둔해서 글렀”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그 끝에 이르러 코우즈키의 불안정한 정체성은 그가 부인했던 조선인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고, 그는 기존에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애서가 혹은 탐미주의자라는 자리에서 벗어나 “고작 더러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노인”으로 자신을 위치시키게 된다. 이처럼 그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지배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과정엔 숙희와 히데코의 탈주가 놓여있다. 숙희와 히데코는 코우즈키의 서재를 파괴하며 그의 저택을 벗어나는데, 코우즈키의 서재는 곧 그의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의 서재를 파괴하는 것은 그의 제국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⁵⁶⁾ 그리고 그 제국을 주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로 무지의 경계선을 넘을 수 없었던 하녀, 숙희다.

오랜 시간 지하실에 대한 공포로 훈육되어 온 히데코와 달리, 그간 히데코가 코우즈키의 지시에 따라 포르노그래피 서적을 읽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에 찬 숙희는 바로 칼로 서적과 화첩을 찢는다. 서고를 무너뜨리고 서재의 연못에 책을 빠뜨리며 잉크를 뿌린 후, 숙희는 자신을 가로막았던 무지의 경계선, 코우즈키를 연상시키는 뱀 모양의 조각상을 부숴버리

55) 정다연, 「에로틱 영화와 〈아가씨〉: -『핑거스미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41-42쪽.

56) 코우즈키의 서재가 그의 “소우주”라는 내용은 김혜리, 앞의 글을 참고.

고 히데코와 저택을 떠난다. 그렇게 히데코에게 숙희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자신을 등쳐먹으러 온 사기꾼에서 “구원자”가 된다. ‘제일 멀리 나가 본 곳이라고는 뒷동산’일 것 같은 히데코가 담을 넘고 해방감을 느끼며 들판을 달려보는 것도 숙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숙희가 코우즈키의 세계를 파괴하면서 히데코의 정신적 해방을 돕는다면, 후지와라를 무너뜨리며 둘을 완전한 해방으로 이끄는 것은 히데코와 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해방은 둘의 레즈비언 관계에 기반한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숙희와 히데코의 탈주는 둘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욕망과 이어진다. 숙희는 히데코에게 빠져들기 전까지 일관되게 “한밑천 잡아서 조선 땅”을 뜨는 것을 목표로, “큰 바다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지, 떠나는 이, 돌아오는 이, 보내는 이, 맞아주는 이”들을 보는 것, 곧 부와 함께 조선이라는 한정된 세계를 벗어나는 것,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욕망한다.⁵⁷⁾ 그러나 히데코와 관계를 맺으며 숙희의 욕망에는 히데코가 들어서기 시작한다.

숙희: (나레이션) 나는 아주 부자가 되어서 아주아주 먼 항구에 가고, 이름도 모르는 것을 먹고, 반짝거리는 것들을 잔뜩 사고, 그리고 히데코 생각을 하지 않고, 히데코 생각을 절대...

한편, 코우즈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히데코의 욕망은 지하실

57) 이때 조선을 벗어나고자 하는 숙희의 욕망이 ‘식민지’ 조선을 벗어나고자 하는 피식민지인의 욕망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영화에서 드러나는 숙희의 전사 중 눈에 띄는 것은 버려진 아기들을 일본에 팔아넘긴다는 것인데, 이를 “가만두면 굶어 죽을 것들을 (일본의) 부잣집 도련님, 아가씨로 만들어” 주는 “보람찬 일”로 묘사하는 것은 숙희가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같은, 피식민지인으로서의 민족성 등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에 대한 공포로 억눌려 있었지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후지와라의 제안을 승낙하며 곧바로 “하녀로 쓸만한 계집아이를 하나 구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히데코가 오랫동안 저택을 벗어날 가능성을 생각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신 대신 조선인 하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던 히데코의 욕망 또한 숙희와의 관계 속에서 굴절된다. 히데코는 숙희에게 “너만 같이 있어주면”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후지와라를 속이고 숙희와 새로운 탈출의 계획을 도모한다.

이처럼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욕망은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애초에 숙희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조선을 빠져나갈 수 없고, 히데코 또한 혼자서는 코우즈키의 폭력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숙희는 후지와라와 히데코의 계략에 따라 정신병원에 갇혀 죽을 운명이었고, 히데코는 후지와라와 마찬가지로, 다시 코우즈키의 저택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 곧 그들이 코우즈키의 폭력으로부터, 그리고 후지와라의 계략으로부터 탈주해 조선을 벗어나 상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의 레즈비언 관계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체계, 코우즈키의 유사 제국주의-가부장제 기반의 폭력과 후지와라의 이성애-남성의 폭력(“여자들은 사실 억지로 하는 관계에서 극상의 쾌락을 느끼죠.”)이 사라진 후, 숙희와 히데코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회의 공동체,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은 둘의 레즈비언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한편, 숙희와 히데코가 향해가는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은 기존 체계와의 단절, 곧 코우즈키와 후지와라의 죽음과 맞물리기에 영화는 기존의 위계적이고 폭압적인 젠더 관계를 벗어난 레즈비언 관계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을 드러낸다. 코우즈키의 지하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름다움을 가장한 서재 아래 감춰진 가부장제의 폭력과 잔인함, 더러운 이야기를

향한 코우즈키의 탐욕, 허세로 위장한 후지와라의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이성애-남성성이 맞이하는 결말이라면, 배 위에 오른 숙희와 히데코는 대칭적인 이미지를 통해 그들을 둘러싼 기존의 사회적 굴레와 경계가 해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숙희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히데코의 모습은 더 이상 조선인 하녀와 일본인 아가씨라는 민족적·계급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한편, 선실에서의 섹스신은 대칭적인 이미지를 통해 동등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준다.⁵⁸⁾ 하지만 이 이미지의 매끈함은 둘을 동등한 관계에 놓는 것을 넘어 둘의 개별성과 차이를 지워낸다. 그리고 이 이미지 안에서 여성이라는 범주는 하나로 단일화되어 버리고, 숙희와 히데코를 둘러싼 민족, 계급, 자본, 그들이 겪어 온 삶의 차이 등은 지워진다.

〈아가씨〉는 〈경성학교〉와 마찬가지로 기존 체계와 단절된,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력을 드러내는 작품이지만, 〈아가씨〉에서 새롭게 상상하는 네이션은 〈경성학교〉와 달리 모든 것이 무화된 폐허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새롭게 꿈꾸는 네이션은 코우즈키와 후지와라로 대표되는 조선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상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구축되겠지만, 동시에 그들을 둘러싼 기존의 관계를 벗어나야만 할 필요도, 새롭게 마주하게 될 외부환경과 완전히 단절될 수만도 없다. 하지만 〈아가씨〉는 현실과의 단절을 선택하고, 폐쇄된 선실 안에서 그들을 둘러싼 기존의 사회적 경계마저 지워지는 미래를 선택한다. 그들이 상상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네이션의 형상은 일면 과거의, 레즈비언 네이션과 닮아있다.

〈아가씨〉를 한국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래디컬 페미니스트(Radical Feminist)들의 움직임과 이어보는 김수연은 이를 1980-90년대 서구에서 전개된 레즈비언 분리주의 진영의 움

58) 김혜리, 앞의 글.

직임에 연결한다.⁵⁹⁾ 그리고 이와 같은 레즈비언 분리주의의 이념은 질 존 스톤의 책 *Lesbian Nation: The Feminist Solution*(1973)에서 제시된다. 레즈비언 네이션의 관념은 남성의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레즈비언 분리주의를 주장하는데, 당시 레즈비언 분리주의자들은 남성뿐 아니라 헤테로 여성들과도 거리를 두며,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생물학적 여성만이 레즈비언이라는 라벨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⁶⁰⁾ 또한 이들은 다른 한편에서 문화주의 페미니스트(cultural feminist)들이 모든 여성 간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헤테로 여성과 레즈비언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⁶¹⁾ 하지만 사실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경계와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Women Love Women)’이라는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다른 경계를 지워내는 것은 레즈비언 분리주의 진영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가씨>가 상상하는 네이션의 미래는 과거의 레즈비언 네이션의 모습과 만난다. 그들을 둘러싼 바깥 세계와의 단절 위에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바탕으로 한 둘의 동질성을 구축하는 <아가씨>의 새로운 네이션을 향한 상상력은 일견 과거의 형상으로 회귀한다.

물론 서구에서 있었던 1970년대 레즈비언 네이션의 기획이 과거에만

59) 김수연, 「Leaving for Lesbian Utopia or Living Here and Now?: Queering Feminist Politics in *Fingersmith* and *The Handmaidens*」, 『영미문학페미니즘』 32권 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24, 104쪽. 김수연은 『핑거스미스』와 <아가씨>를 비교하며, <아가씨>의 결말이 보여주는 흐릿한 비전이 지니는 한계를 짚는다. 이 절의 결말은 <아가씨>를 2010년대 중반, 탈조선하고자 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비전과 연결하며, 이를 1980-90년대의 레즈비언 페미니즘/분리주의와 이어 보는 그의 논의를 많은 부분 참고해 아이디어를 얻었다.

60) Nina Littel, “Playing the game of lesbian imagination: radical lesbian feminist organising in the Dutch Lesbian Nation”, *WOMENS HISTORY REVIEW* Vol.31, 2022, pp.68-69.

61) 위의 글, p.69.

머무르는 것만은 아니다. 김수연이 이미 앞선 논의에서 짚어냈듯,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나타난 한국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움직임 또한 레즈비언 분리주의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⁶²⁾ 여성혐오를 미러링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 여성혐오 살해를 적극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한 메갈리아의 운동을 이어가며, 2018년 한국에서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꾸밈노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탈코르셋 운동과 함께 비혼,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을 일컫는 4B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⁶³⁾ 이들은 곧 “정치적 레즈비언”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며, 남성과 관계 맺는 여성들—기혼 여성, 남성과 연애하는 여성, (퀴어)남성과 연대하는 “쓰까 페미”⁶⁴⁾, 그리고 트랜스 여성 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결국 이들은 가부장제의 폭력과 착취에 맞서 여성들의 생존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나는 내 파이를 구하러 왔을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⁶⁵⁾ 라는 구호 아래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조차 스스로의 생존만을 도모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갈라지며 분열하고 있다. 어쩌면 김수연의 논의가 보여주듯, <아가씨>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움직임의 자장 안에서 동시대의 페미니스트 정치학과 레즈비언 재현의 긴장을 반영한 영화일 수도 있다.⁶⁶⁾ 하지만 이 글은 2010년대 중반부터 드러난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혐오와 <아가씨>가 보여주는 전

62) 김수연, 앞의 글.

63) 이민경, 『메갈리아 이후 여성에 동일시한 여성들의 생애 이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3쪽.

64)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교차성 페미니스트에 대해 “생물학적 여성”만이 아닌 퀴어, 동물, 난민, 이주민, 빈곤, 인종 등 여러 교차적 억압 관계를 “섞어” 운동을 한다고 비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65) 김진아, 『나는 내 파이를 구하러 왔을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바다출판사, 2019.

66) 김수연, 앞의 글, 104-105쪽.

망을 이어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아가씨〉가 드러내는 레즈비언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레즈비언 네이션으로의 회귀로 읽어보았다. 비록 그 회귀가 폐쇄적인 레즈비언 공동체의 예견된 실패라는 한계를 지니더라도, 그 미래는 지금의 혐오와는 다른 결의 상상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4. 〈유령〉: 포스트-퀴어네이션을 향한 확장의 움직임

〈유령〉은 〈경성학교〉, 〈아가씨〉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네이션을 수호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영화다.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을 기반으로 하는 〈유령〉의 서사는 서론에서 언급한 이성애에 기반한 ‘식민지 로맨스’의 서사와 닮아있지만, 〈유령〉의 로맨스는 박차경과 유리코의 레즈비언 관계에 기반하기에 앞서 이성애 ‘식민지 로맨스’에 등장하는 구조자로서의 남성과 구출되는 여성의 구도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남성에게 구출되는 무력한 여성들이 아니며, 이 영화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독립운동의 주체들이자 레즈비언 로맨스의 주인공이다. 이 절에서는 〈유령〉이 보여주는 박차경과 유리코의 이끌어가는 독립운동이 그들의 연대에 기반한 레즈비언 로맨스, 그리고 그들의 운동 안에 내재된 퀴어와 비-퀴어 존재들 간의 연대와 교차성 페미니즘의 전망을 바탕으로 〈유령〉이 향해가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포스트-퀴어네이션을 향한 확장의 움직임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유령〉은 1933년 조선총독부에 새로 부임한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흑색단의 스파이, 유령을 색출하려는 경호대장 다카하라의 작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화는 처음부터 박차경이 흑색단의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로에 대한 의심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심문 끝에 이백호가 박차경이 유명이라고 시인했음에도 박차경이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자, 다카하라는 박차경의 눈 앞에서 이백호를 총으로 쏜다. 그리고 박차경이 다카하라를 공격하려고 일어서려는 그때, 유리코가 다카하라에게 달려든다. 이렇게 박차경과 유리코, 조선총독부 안에 두 명의 유명이 잠입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유령〉은 박차경과 유리코가 서로를 도와 흑색단을 소탕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작전을 저지하고 다른 흑색단원들을 살리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한편, 탈출의 과정 속에서 유리코는 박차경에게 정의나 용기 같은 일념이 있어 보이는 편은 아닌데 왜 목숨을 걸고 흑색단 활동을 하는지 묻는데, 그에 박차경은 “사랑하는 사람의 신념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때 박차경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영화의 초반부, 조선총독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한 윤난영이다. 〈유령〉은 윤난영이 암살을 시도하기 3일 전, 영화관 앞에서 박차경과 윤난영이 마주쳐 담뱃불을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둘의 관계를 암시하고, 이 대사를 통해 둘의 레즈비언 관계를 공고히 한다. 그리고 박차경과 윤난영의 레즈비언 관계를 암시하던 이 담뱃불은 박차경과 유리코 사이로 옮겨간다. 윤난영과 박차경이 담배를 나눠피듯 박차경이 피던 담배를 유리코가 가져갈 때, “나라 되찾으면, 담배나 끊을까”하는 박차경의 혼잣말에 유리코는 “더 맛있어질 텐데, 왜”라고 답한다.⁶⁷⁾ 이때 담배는 독립운동을 통해 연대하는 둘의 관계가 레즈비언 로맨스로 연결될 것을 암시하는 기호가 된다. 더불어 영화

67) 일부 관객은 박차경과 윤난영이 담배를 나눠피는 장면을 가리켜 담배키스라고 부른다. https://x.com/honey__0302/status/1711022821693178100 (검색일: 2025. 09.05.)

는 박차경과 유리코의 관계에 어떤 명시적인 이름도 부여하지 않지만, 관객들은 이 영화에 배태된 퀴어 코드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계에 유동하는 퀴어함을 기대하고, 읽어낸다. <유령>의 감독 이해영은 <천하장사 마돈나>(2006), <페스티벌>(2010), <경성학교>를 비롯해 꾸준히 퀴어 영화를 작업해 왔고, 윤난영과의 전사를 통해 드러나는 박차경의 레즈비언 정체성뿐 아니라 박차경과 유리코 사이에 형성되는 연대의 기류는 둘 사이의 관계를 퀴어하게 읽기에 충분하게 만든다. 더불어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여성 간의 연대는 워맨스 코드로 레즈비언 로맨스와의 연장선 위에서 관객들에게 퀴어함을 소구해왔는데, 최근에 워맨스는 점차 레즈비언 로맨스로 그 위치를 옮기며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왔다.⁶⁸⁾ <유령>은 박차경과 유리코 사이의 연대와 저류에 깔려있는 퀴어 코드를 통해 레즈비언 로맨스를 형성한다.

결국 <유령>은 박차경과 유리코가 서로를 구하고 나라를 지키며 피워내는 레즈비언 로맨스를 보여주며, 독립운동하는 레즈비언이라는 새로운 상을 그려낸다. 하지만 박차경이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흑색단 활동에 뛰어들었듯, 유리코를 비롯한 이 영화의 인물들에게 그들이 새롭게 그려내는 네이션의 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유령>에서 조선의 의미를 반복해서 묻는 것은 조선인의 피를 혐오하는 무라야마 준지로, 그는 자신의 일본인 아버지를 죽인 조선인 어머니에게도, 조선을 되찾겠다며 활동하는 흑색단 대원들에게도 “망해서 사라진지 10년이 넘은 나라”인 조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명확하지 않다. 준지의 어머니는 그저 “세

68)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이문우, 「워맨스에서 레즈비언 로맨스로-〈마마〉-〈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마인〉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2, 337-364쪽을 참고할 것.

한연후 지송백지부조(세밑 추위를 지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글귀를 읊조린 채 죽음을 택하고, 흑색 단의 대원인 소년 또한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라)”이라는 공자의 말을 외치고 죽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오랜 역사 속 글귀에서 끌어올 법한 역사적인 소명 의식은 있지만, 현 체제를 벗어나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네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은 없다.

그럼에도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박차경과 유리코가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유령>은 앞선 두 영화, <경성학교>, 그리고 <아가씨>와 결을 달리 한다. <경성학교>가 폐허가 된 공간 속 두 명의 레즈비언과 비인간 생명들, 비생명 사물들 간의 난잡한 돌봄 공동체를, <아가씨>가 기존의 관계를 단절한 채 폐쇄적인 선실 안의 두 레즈비언을 통해 레즈비언 네이션이라는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력을 드러낸다면 <유령>에서 그려내는 관계는 박차경과 유리코, 둘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비록 <유령>이 새로운 네이션의 구체적인 상에 대한 적극적인 상상력을 드러내지는 않을지라도, 영화가 그려내는 인물 간의 관계는 이 영화가 지향하는 네이션의 잠재적인 방향을 보여준다. 영화는 박차경과 유리코의 레즈비언 로맨스와 연대를 기반으로 비-퀴어 존재들과 함께 하는,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령>의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미래상을 그려내며 이어지는 것은, 이들의 운동이 폐쇄적인 관계를 벗어나 유연하게 확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유령>의 확장된 연대, 일본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조국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독립운동이 향해가는 방향을 이 글에서는 포스트-퀴어네이션을 향한 움직임으로 읽는다. 포스트-퀴어네이션은 <위켄즈>를

분석하며 제안한 개념으로 퀴어네이션을 통해 표현되는 퀴어 당사자들 사이의 연대와 관계를 넘어 퀴어와 비-퀴어 존재들 간의 연대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⁶⁹⁾ 앞서 언급했듯, 〈유령〉이 앞선 두 영화와 분별점을 갖는 지점은 박차경과 유리코가 그들만의 폐쇄적인 유대와 관계를 넘어 동지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이어간다는 점에 있다. 물론 박차경과 윤난영의 관계나 유리코와의 관계가 그들과 함께 하는 비-퀴어 존재들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인식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에 그들의 독립운동이 띠고 있는 모습을 포스트-퀴어네이션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그들의 운동이 포스트-퀴어네이션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유령〉의 운동은 기존의 국가라는 상상력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연대에 대한 상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혈통, 영토, 민족과 같은 가상의 경계를 바탕으로 혐오와 폭력을 이어가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상력이다. 〈유령〉은 그 힘을 여성 간 연대와 연결되는 레즈비언 로맨스를 통해, 그리고 그들과 이어지는 비-퀴어들의 연대를 통해 형성한다. 여성, 퀴어, 조국을 잃어버린 피식민자 간 얽혀있는 억압과 이를 풀어나가는 연대를 통해 이 글은 소수자를 아우르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운동을 이어가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방향성을 읽는다. 그렇기에 〈유령〉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퀴어에 대한 혐오를 벗어나 퀴어와 비-퀴어 존재가 연대하는 포스트-퀴어네이션을 향한 움직임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유령〉은 박차경과 유리코와의 관계를 통해 보다 많은 소수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 폭넓은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곧 〈유령〉의 레즈비언 로맨스는 여러 위치의 교차하는 억압 속에서 소수자들

69) 이문우, 「한국 퀴어 시네마의 새로운 지형과 포스트-퀴어네이션에 대한 상상: 「위켄즈」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1권 1호, 인문사회 21, 2020, 665-678쪽.

이 관계 맺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가능성 또한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퀴어네이션을 향한 운동은 보다 두텁게 확장될 것이다. 결국 <유령>은 구체적인 네이션에 대한 상상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레즈비언 로맨스와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연대를 통해 새로운 네이션을 향한 움직임 보여준다. 그들은 분명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움직임이 언젠가 하나의 네이션의 상을 이루게 되리라고 상상할 수 있다.

<유령>은 독립운동하는 레즈비언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식민지 로맨스'의 서사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식민지 로맨스' 서사 안에서 여성이 구출의 대상이거나, 남성을 주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서사의 계기가 되며 대상화되어 왔다면 <유령> 안의 레즈비언들은 서사의 주체이자 동지들을 구출하는 독립운동의 주체로 등장한다. 물론 <유령>에도 '식민지 로맨스' 서사와 유사한 한계는 존재한다. <유령>에는 일본 제국이라는 투쟁의 대상, 지켜야 할 조국이라는 수호의 대상은 존재하지만, 대중 서사 안에서 자연스레 반복되어 온 대의 외에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네이션의 상은 부재한다. 그렇기에 <경성학교>가 이성애-남성-가부장체계와 신자유주의 경쟁체계로부터의 이탈을, <아가씨>가 제국주의-가부장제의 폭력과 이성애-남성의 폭력으로부터의 이탈을 꿈꿨다면, <유령>의 인물들은 그저 조선인이라는 민족의 피에 대한 제국의 폭력에 저항할 뿐이다. 이처럼 <유령>의 갈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평면적이고 그 안에 새롭게 상상되는 네이션의 상이 부재함에도, 이 글에서는 이 영화에 나타나는 퀴어와 비-퀴어 존재의 연대를 주목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유령>은 여성 간의 연대와 이어지는 레즈비언 로맨스, 그리고 그로부터 확장되는 소수자 간의 연대를 보여주며 교차성 페미니즘의 방향성 또한 시사한다. 이처럼 <유령>은 레즈비언 로맨스를 통해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식민지 로맨스' 서사에 새

로운 가능성을 불어넣는다. 박차경과 유리코가 동지들을 구해 그들과 관계 맺고 서로를 살리며 계속해서 운동을 지속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이 사라진 폐허 위에서 꿈꾸지도 않고, 폐쇄된 선실에 머무르지 않은 채 새로운 네이션의 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속된 운동은 퀴어와 비-퀴어 존재의 연대를 넘어, 보다 많은 소수자가 관계 맺고, 서로를 살리는 확장된 포스트-퀴어네이션이라는 새로운 네이션의 상을 향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이 글은 식민지 시기 경성을 재현하는 세 편의 영화 〈경성학교〉, 〈아가씨〉, 〈유령〉에 나타나는 레즈비언 로맨스에 주목하며, 이 영화 속에 나타나는 레즈비언 관계가 향해가는 새로운 네이션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식민지 시기 경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성애 기반의 ‘식민지 로맨스’의 서사가 여성을 구출해야 하는 대상, 혹은 남성을 서사의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로 그려왔다면, 이 세 편의 작품은 여성을 서사의 주체이자 독립운동의 주체로 그려낸다. 그리고 각 작품은 여성 인물 간의 연대와 함께 레즈비언 로맨스를 그려내면서 그들이 현 체제를 이탈하며 새롭게 상상하는 네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경성학교〉를 퀴어-호러, 그리고 SF의 상상력 속에서 읽어나가며 영화의 마지막에 떠오르는 주란의 환상 속 장면을 인간과 비인간 생명들, 비생명 사물들의 이종들이 얽히고 연결되는 난잡한 돌봄 공동체의 잠재태로,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의 가능성이자 그를 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보고자 했다. <아가씨>의 경우, 여성이라는 몸의 대칭적 이미지를 통해 속회와 히데코의 민족적, 계급적 차이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의 차이, 개별성까지 지워 버린 듯한 폐쇄적인 선실 속 섹스신을 통해 레즈비언 네이션으로의 회귀를 읽었다. 마지막으로 <유령>은 ‘식민지 로맨스’ 서사의 구조와 유사하게 독립운동하는 레즈비언을 그려내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네이션의 상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퀴어와 비-퀴어 존재들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될 수 있는 독립운동을 끌어간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관계 맺음을 통해 교차성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퀴어 네이션을 향한 보다 확장성 있는 움직임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 글은 퀴어영화 연구에서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탈식민의 가능성, 혹은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의 가능성을 레즈비언 로맨스와의 관계 속에서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경성학교>와 <아가씨>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면서도 이성애 관계에 기반한 ‘식민지 로맨스’ 서사에서 나타났던 피상적인 조국의 수호라는 대의를 벗어나 기존의 폭압적인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네이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유령> 또한 ‘식민지 로맨스’ 서사와 일정 부분 유사한 한계를 보이지만, 남성애 의해 구축되는 여성이라는 도식을 벗어나 독립운동하는 레즈비언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의 네이션을 향한 움직임을, 그를 통해 새로운 네이션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작품의 레즈비언 로맨스가 여성 연대와 의 연장선 위에 놓여있으며, <경성학교>와 <아가씨>가 저항하고 탈주하는 체제가 이성애-남성-가부장체계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유령> 속 인물들의 관계가 시사하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기반은 동시대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의 방향성과 교차하여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곧 서두에 밝혔듯,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는 과정, 경성에 대한 재현이 네이션에 대한 동시대적 상상을 반영한다면, 이와 같은 식민지 경성 속 레즈비언들의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은 페미니즘 리부트라고도 불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진행 중인 페미니즘 운동과의 자장 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해영 감독,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2014)

박찬욱 감독, <아가씨>(2016)

이해영 감독, <유령>(2023)

2. 논문과 단행본

강성률, 「일제강점기 배경 영화의 탈식민주의적 독해-파노믹로 <마이 웨이>와 <암살> 분석」, 『씨네포럼』 제22호, 영상미디어센터, 2015, 473-500쪽.

구자준, 「'식민지 로맨스'의 네이션과 젠더-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8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2, 111-148쪽.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8호, 한국근대문학회, 2008, 203-234쪽.

김소연, 「초능력 영화와 포스트바디의 알레고리적 존재론—<초능력자>,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엽력>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29집,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243-266쪽.

김수연, 「Leaving for Lesbian Utopia or Living Here and Now?: Queering Feminist Politics in Fingersmith and The Handmaiden」, 『영미문학페미니즘』 제32권 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24, 103-135쪽.

김승경, 「역사와 기억 사이: 영화 <암살>」, 『현대영화연구』 제12권 1호, 현대영화연구소, 2016, 133-160쪽.

김지영, 「정년과 근대: 영화 <기담>의 식민지 시대 재현방식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6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369-394쪽.

김진아, 『나는 내 파이를 구하러 왔을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바다출판사, 2019.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정소영 역, 니케북스, 2021.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2021.

- 문경연, 「식민의 시대, 애도의 드라마-〈경성 스캔들〉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345-378쪽.
-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근대 소녀의 타자성 형성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97호, 한국어문학회, 2007, 267-290쪽.
- 백문임, 「소녀 괴물과 남성 마조히스트: 한국 영화와 미성년」, 『문학과 사회』 제17권 2호, 문학과지성사, 2004, 713-728쪽.
- 손희정, 「21세기 한국영화와 네이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신시아 인로, 『바나나, 해변, 그리고 군사기지』, 권인숙 역, 청년사, 2011.
- 양근애, 「역사드라마는 왜 로맨스를 필요로 하는가-〈미스터 션샤인〉(2018)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123-153쪽.
- 이문우, 「1980년대를 퀴어링하기: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_____, 「워맨스에서 레즈비언 로맨스로-〈마마〉-〈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마인〉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2, 337-364쪽.
- _____, 「한국 퀴어 시네마의 새로운 지형과 포스트-퀴어네이션에 대한 상상: 「위켄즈」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1권 1호, 인문사회 21, 2020, 665-678쪽.
- _____, 「소녀 괴물과 퀴어한 신체」, 인문학 연구소, 『횡단인문학』 제8호,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21, 213-236쪽.
- 이민경, 『메갈리아 이후 여성에 동일시한 여성들의 생애 이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이현재,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과 난잡한 돌봄 공동체」, 『한국여성철학』 제37권, 한국여성철학회, 2022, 27-60쪽.
- 정다연, 「에로틱 영화와 〈아가씨〉: -『핑거스미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20.
- 재스비어 푸아, 이진화 옮김, 「퀴어한 시간들, 퀴어한 배치들」, 『문학과 사회』 제29권 4호, 문학과지성사, 2016, 88-118쪽.
- 주유신, 「위안부 영화와 역사쓰기의 새로운 도전: 〈귀향〉과 〈눈길〉을 중심으로」, 『동

- 북아문화연구』 제5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95-111쪽.
- 진수미, 「〈모던보이〉와 〈암살〉의 본정과 종로 재현 연구-탈식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9권 7호, 한국콘텐츠학회, 2019, 234-245쪽.
- 한의정, 「현전-부재의 흔적: 그림자의 현대적 변용에 대하여」, 『현대미술사연구』 제37집, 현대미술사학회, 2015, 223-245쪽.
- 허 윤, 「번역된 섹슈얼리티, 식민지 조선의 퀴어와 만나다」,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 제34권 3호, 2018, 155-166쪽.
- _____, 「일본군 '위안부' 재현과 진정성의 곤경-소녀와 할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29호, 한국여성사학회, 2018, 131-164쪽.
- Nina Littel, "Playing the game of lesbian imagination: radical lesbian feminist organising in the Dutch Lesbian Nation", *WOMENS HISTORY REVIEW* Vol. 31, 2022, pp.68-87.

3. 기타 자료

- 강병진, 「〈모던보이〉 1930년대 경성, 모던보이의 지독한 사랑」, 『씨네21』, 2008.09.18.,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52999. (검색일: 2025.09.01.)
- 김혜리, 「〈[스페셜] 〈아가씨〉 본격 스포일러하는 인터뷰 - 박찬욱 감독에게 묻다〉, 『씨네21』, 2016.06.06.,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4313. (검색일: 2025.09.03.)
- 전쟁과 여성 영화제, <https://www.youtube.com/watch?v=s2g-lh35iA4&t=1435s>. (검색일 :2025.09.01.)
- LEE HYU-WON, "Park Chan-Wook Talks 'The Handmaiden', Homosexuality Onscreen and Korean Films' Specific Appeal (Q&A)", 2016.05.13., <https://www.hollywoodreporter.com/movies/movie-news/park-chan-wook-handmaiden-homosexuality-893716>. (검색일: 2025.09.03.)
- 트위터, https://x.com/honey__0302/status/1711022821693178100. (검색일: 2025.09.05.)

Abstract

Colonial Kyungsung, Lesbian Romance, and the Imagination of a New Nation: Focusing on *The Silenced*, *The Handmaiden* and *The Phantom*

Lee, Moon-Woo(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lesbian romances depicted in three films set in colonial Kyungsung—*The Silenced*, *The Handmaiden*, and *Phantom*—and explores how these relationships imagine alternative forms of the nation.

While many works that reconstruct colonial Kyungsung often merg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olonial Korea with heterosexual romance, women therein have typically been objectified, serving as passive figures who either await rescue or function as catalysts for men's return to the nation. Such "colonial romance" articulate imperial struggle and patriotic duty but lack visions of new nation. By contrast, the three films discussed here foreground relationships between women outside heterosexual structures. *The Silenced* is read through queer-horror and SF imaginations, where the final fantasy scene envisions a promiscuous caring community of human and nonhuman others as a potential form of new nation. *The Handmaiden* presents the return to a lesbian nation through the symmetrical imagery of women's bodies, particularly in the enclosed ship cabin sex scene that erases class, ethnicity, and individuality. *The Phantom*, while echoing the "colonial romance" structure by portraying lesbian independence fighters, reveals a movement toward the post-queernation sustained through solidarity between queer and non-queer subjects suggesting a direction aligned with intersectional feminism.

In doing so, this study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lesbian romances in reimagining both decolonial possibilities and alternative nations, thereby

144 대중서사연구 제31권 3호

expanding the scope of queer film studies.

(Keywords: Colonial Kyungsung, Lesbian Colonial Romance, The Silenced, The Handmaiden, The Phantom, Promiscuous Caring Community, Lesbian Nation, Post-Queernation)

논문투고일 : 2025년 9월 10일
논문심사일 : 2025년 10월 17일
수정완료일 : 2025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0일